

뛰어난 스페인어권 문학 소개 활발

높은 문학성과 정서적 공감대로 우리 독자에게 손짓

스페인어권 문학의 출판이 활발하다. 《돈 키호테》가 근대소설의 초창기를 화려하게 장식한 이래 세계문학사에서 스페인어 문학의 비중은 상당하다. 20세기 중반부터는 남미문학이 현대문학의 대표주자로 등장, 성가를 높이고 있다. 1950년 이후 남미에 안겨진 노벨문학상은 무려 10개. 시인으로는 칠레의 파블로 네루다가 첫손 꼽히고, 소설로는 콜롬비아의 가브리엘 마르케스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두 작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지않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다 보르헤스, 요사 등의 작품 역시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젊은 작가의 작품이 주류

최근 소개된 스페인어 문학은 보르헤스나 마르케스의 뒷세대에 속하는 '젊은 작가'의 작품들이 많다. 원작자만 젊은 것이 아니고 번역자도 젊고, 출판사 역시 젊다. 《문신》 《남쪽바다》 《파블로 네루다와 우편배달부》 등 세권의 스페인어 소설을 한꺼번에 펴낸 '사람과책'은 이제 2년된 출판사.

《문신》과 《남쪽바다》는 현존하는 스페인 최고의 소설가 마누엘 바스케스 몬탈반의 작품이다. 몬탈반은 청년기에 좌익운동에 참여해 정치범이 되기도 했으나, 민주주의가 회복되자 이념을 버리고 사회비평가로 명성을 얻었다. 자신을 닮은 주인공 카르발로를 내세운 일련의 범죄소설을 통해 80년대 스페인 소설계를 주도했다.

사람과책(대표 이보환)은 스페인어 문학을 출판사의 주력으로 내세우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표작가를 물색하던 중 몬탈반을 발견했다. 두 작품 다 스페인의 콤플루텐세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안금영씨가 우리말로 옮겼다.

한 청년의 삶과 죽음을 추적하는 《문신》은 추리기법을 채용한 본격문학으로 스페인 문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바르셀로나 해변에 '나는 지옥을 혁명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문신이 새겨진 신원미상의 시체가 떠내려 온다. 카르발로 탐정은 문신을 단서로 신원조사를 시작한다. 고아원·소년원·교도소·야학·이민노동자·마약 운반책으로 이어지는 사망자의 삶이 드러난다.



《남쪽바다》는 카르발로를 주인공으로 한 네 번째 소설. 독재정권과 결탁해 부실공사와 특허로 재벌그룹을 일구었지만 정신적인 공허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재벌 총수의 삶이 그려진다. 몬탈반은 16권의 저서를 갖고 있는데,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몬탈반의 나머지 작품들도 번역할 생각이라고 출판사 측은 밝혔다.

몬탈반이 포스트프랑키즘(프랑코독재 이후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라면, 안토니오 스카르메타는 포스트붐의 대표 작가이다. 붐 소설은 남미의 실험주의 소설로, 난해하고 환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르헤스의 모든 작품과 마르케스의 《백년동안의 고독》이 여기에 속한다. 포스트붐 소설은 붐 소설의 작품성은 유지하되 난해함은 덜어낸 것. 작품 구성이 간결하고, 줄거리가 단순하며, 환상적인 요소에서 탈피했다.

《...와 우편배달부》는 영화로 먼저 알려진 소설. 영화의 배경은 이탈리아로 설정돼 있으나, 원래는 칠레의 조그만 섬 '이슬라 네그라'다. 대사인 파블로 네루다와 우편배달부 마리오 히메네스의 우정과 신뢰를 그렸다. 어부 생활에 싫증을 느낀 마리오네 네루다의 전담 우체부가 된다. 마리오네 네루다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시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자 지금까지 범상하게 보이던

세계문학 수용의 다변화라는 점에서 최근 스페인어권 문학의 활발한 소개는 바람직하다. 현대사 경험이 우리와 비슷한 스페인과 남미 여러 나라의 문학은 우리 독자에게 정서적인 접근도 용이하다. 남미의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작품들의 소개는 더욱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위 사물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이 소설은 지난 3월 영화의 국내 개봉에 즈음하여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 그 소식을 듣고 원서를 강의 교재로 사용한 세명의 강사가 우리말 번역본을 들고 왔다. 출판사의 '낙점'을 받은 것은 권미선씨의 번역이었다.

토마스 리베라의 《해를 삼켜버린 9.43 29》(장원)는 치카노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치카노 문학은 미국에 정착한 멕시코인들이 쓴 작품을 일컫는다. 《해를 ... 9.4329》는 멕시코계 미국 소년의 눈을 통해 본 세상이야기다. 농장주 몰래 물을 마시다 총에 맞는 소년, 아이를 집에 두고 일을 나갔다가 화재로 아이를 잃는 부부, 백인과 싸웠다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멕시코인 학생 이야기

등 12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미국사회에서 유색인종이 겪는 고통을 고발하고 있다. 창작과 스페인어 문학 번역을 병행하고 있는 황병하씨가 우리말로 옮겼다.

《아버지의 여자》(인화)는 하비에스 마리아스의 대표작으로 '결혼'이 배경이다. 미묘하게 얽힌 과거와 그것 때문에 위협받는 현재의 이중구조로 동시동역사인 주인공, 갓 결혼한 아내 줄리아, 예술품 감정가인 아버지 란츠, 옛 애인 베르타 등이 등장해 마드리드의 신흥 살림집과 국제회의 중심지 뉴욕과 제네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번역가와 통역사로 활동하는 김수진씨가 번역했다.

우리와 역사경험 비슷

스페인어권 문학의 소개는 영·불·독문학에 편중된 세계문학의 수용을 다변화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및 남미 여러나라와의 역사적 유사성. 우리와 스페인은 내전·군부독재·경제성장·민주화 등 현대사의 경험이 비슷하다. 더구나 남미 제국과는 식민지 경험까지 같다. 그런 까닭에 "고유명사만 바꾸면 한국 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사람과책 김옥수 편집장은 말한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미국의 스릴러 소설이나 난해한 유럽소설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정서적인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스페인어권 문학의 질적인 우수성. "서양의 지적 유산을 섭렵한 바탕에 남미의 독특한 분위기가 결합"돼 남미문학이 세계문학의 주도권을 거머쥐었다고 김현창 교수(서울대 서어서문학과)는 진단한다. 게다가 이번에 소개된 소설들은 플라네타네상, 키토솔 문학상, 로물로 가예고스상 등 주요한 스페인어권 문학상 수상작이거나 수상 작가의 대표작이다.

"남미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지만 문학성은 뛰어나다. 국내에는 스페인어 문학을 전공한 소장학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이 젊은 학자들에 의해 스페인어 문학의 소개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김현창 교수는 전망했다.

—최성일 기자